

미디어 교육 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모델 연구 -온라인 대학을 중심으로-

Study on Curriculum Model for Media Education Expert
-Basis on Online University-

이성균*, 윤영두**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육학부*, 강원대학교 디자인학과**

Sung-Kyun Lee(isk@sdu.ac.kr)*, Youngdoo Yoon(yoon02@kangwon.ac.kr)**

요약

최근 우리나라는 미디어법의 통과로 인하여 미디어의 영향력이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미디어문화의 발전과 체계적인 미디어교육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이제는 단순한 ICT활용 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디어문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교육적 역할 제시를 위해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미디어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 가야 한다. 본 연구는 미디어교육이 학교 밖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 내의 공교육으로까지 올바른 미디어교육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시스템을 만들어 가기 위한 방법으로 통합적 미디어교육을 담당하는 교사들을 위한 새로운 전문인 양성 교육과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진행되어져 왔던 단편적이고 비체계적인 미디어교육 시스템에서 벗어나, 좀 더 전문적이고 체계적이며 구체적인 방법인 미디어 리터러시 영역, 미디어스토리텔링 영역, 미디어제작 영역 등의 세 가지의 교육단계로 교육과정을 나누어 제시하였다.

■ 중심어 : | 원격대학 | 미디어교육 | 미디어교육사 | 온라인 교육과정 |

Abstract

Since the Media law recently passed, the media's influence has further enhanced than before. However, in reality, systematic media education can't catch up a trend of the fast growing media culture development. The new paradigm is much needed in getting rid of utilizing previous ICT training tool but rather using a creative and critical new role model.

This study, media education in schools outside the school, as well as to the proper education of the active and systematic media education system as a way to create a top integrated media that is responsible for training new teachers to offer courses to train professionals. To change fragmentary and unsystematic media education system having been implemented to more professional, systematic and concrete, it is proposed that 3 systematic courses media literacy course, media story telling course and media production course should be implemented.

■ keyword : | Distance University | Media Education | Media Education Teachers | On-line Curriculum |

I. 연구목적 및 내용

디지털시대가 활성화되기 이전에는 미디어문화의 중심에 TV가 있었고 그것을 통한 방송의 영향력은 미디어

문화의 이점뿐만 아니라 그에 파생되어 나타나는 부정적 측면까지 그대로 습득하게 하였다. 디지털시대로 넘어오면서 디지털 문화와 인터넷의 발달로 인하여 언제 어디서나 미디어에 접근이 더욱 용이해졌으며, 누구나 쉽게

문화적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되었다. 특히 휴대가 가능한 멀티미디어 플레이어인 PMP, 또한 언제든지 간단하게 접할 수 있는 DMB, 최근 선보이고 있는 인터넷기반 영상 서비스인 IPTV를 통하여 이제 시간에 맞추어야만 방송을 볼 수 있는 시대에서 벗어나 시간과 공간의 제한 없이 영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와 같은 기술적 발전과 다양한 영상 콘텐츠의 제공은 산업의 발전과 지역과 지역을 이어주는 새로운 인프라를 구축하게 하였다. 또한 ICT(정보통신기술)를 통해 삶의 질적 발전은 물론 교육 현장에서의 환경변화와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미디어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요구한다.

이에 본 연구는 단순한 ICT활용 교육에서 벗어나 새로운 미디어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교육적인 역할을 제시하면서, 학교 외적인 미디어교육은 물론 학교 내의 미디어 교육 현장에까지 올바른 미디어교육의 활성화와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해 디지털 시대에 새롭게 요구되는 미디어교육의 형태와 미디어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을 제안하고자 한다. 특히 학교 현장 교사와 미디어 관련 종사자들에 대한 재교육 및 평생교육을 위해 현실적으로 가장 교육의 접근이 용이한 원격대학에서의 전문 미디어교육사 양성을 위해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안한다. 이것은 인터넷을 통하여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전문가 양성교육을 받을 수 있는 새로운 온라인 교육환경에 대한 사회적 요구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 하겠다.

본 연구는 영상 미디어교육에 대한 이론적 개념 정의와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외 미디어교육 현황 및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 논문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미디어교육의 새로운 체계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과 타당성 제시는 물론, 이것을 토대로 사이버대학 내 관련 전공 간 통합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전문적인 재교육 또는 연수교육을 쉽게 접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이미 2003년부터 한국언론재단에서는 미디어교육 활성화를 위해 학교의 정규 교과시간을 비롯한 특기적성, 특별활동, 재량활동, 기타 시간에 미디어교육을 실시하고자 하는 초·중·고에서의 미디어교육 전문 강사 지원 사업을 실시해 왔다[1]. 이러한 다양한 관련기관의 교사 지원 및 양성과정에 대한 분석과 여러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전문

성을 갖춘 미디어교육 전문 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온라인 교육과정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미디어 환경 변화와 미디어 교육의 필요성

1. 미디어교육의 개념 정의

현대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대중성이며 이러한 대중성의 기반은 속도중심의 디지털미디어이다[2]. 짧은 시간 동안 급속하게 발전해온 미디어는 현대사회에서 대중매체들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요소로 자리 잡고 있으며, 정보전달이나 여론 형성 기능뿐만 아니라 사회를 이해하고 소통하는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정보는 미디어의 발전으로 과거에는 경험 할 수 없었던 속도와 규모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새롭게 발전하는 테크놀로지를 통해 미디어 사회를 주체적이고 안정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 미디어 테크놀로지를 통해 형성되는 다양한 정보의 사회화는 미디어에 대한 새로운 연구와 교육에 대한 관심을 한층 높이고 있다. 특히 미디어교육은 현대 사회에서 절실히 필요한 교육의 새로운 영역으로 구분되고 있다. 미디어교육이란 무엇인가? 미디어교육의 개념은 여러 단어나 학자들에 따라 다양하게 규정하고 있어 일반화된 개념으로 정의하기엔 어려운 점이 있다. 미디어교육과 혼용된 용어를 보면 미디어 의식화, 미디어 연구, 정보교육, 커뮤니케이션교육, 시청각교육, 비판적 시청기술, 매스미디어, 미디어 제작교육 및 근래의 영상 문화교육까지 다양한 용어들이 있어 개념적 혼동을 일으키게 한다. 이와 같은 개념적 혼동에도 불구하고 미디어 교육의 방향과 의미는 대체적으로 공통된 합의점을 도출하려는 노력들이 있다. 미디어 교육이란 라디오, TV, 비디오, 영화, 사진, 인쇄물, 대중음악, 컴퓨터, 인터넷 등에 대한 학생들의 비판적 이해 능력을 향상 시켜주고자 하는 것이다[3]. 즉, 인쇄물, 청각, 비디오 또는 멀티미디어의 메시지에 접근하여 그 내용을 분석, 평가하고 그리고 의사소통 할 수 있는 능력 및 새로운 메시지 창출 능력을 기르는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미디어교육에 대한 개념은 초창기에 TV 영상 미디어의 영향력으로부터 수용자를 보

호하는 관점에서 리터러시(literacy)교육 영역이 중심이 었지만, 이제는 통합적인 지적능력이 요청되는 디지털미 디어 영역까지 확장되어 인터넷과 게임 등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리터러시의 영역을 포함하게 되었다[4].

많은 국내 학자들이 미디어교육에 대한 다양한 정의를 제시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미디어교육을 매체의 본 질 이해교육, 매체 수용교육, 매체 적용교육, 매체 제작 교육, 매체 비판 및 비평교육 등의 개념을 모두 포함한 개념으로 종합 할 수 있다[5]는 주장이 가장 큰 틀에서 미디어교육의 정의이다. 미디어교육의 개념을 학문적으 로 볼 때 교육학을 비롯하여 사회학, 심리학, 철학, 문화 및 정보기술 등의 학문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현대사회에서 미디어교육은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중요한 교육적인 내용이며, 학교현장에서도 점점적 으로 미디어교육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학교현장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교육에 대한 이 해는 ICT 활용교육이 차지하는 대중적 인기 속에서 그 본래적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정보화의 바탕에는 미디 어라는 거대 구조의 토대가 있다. 이 거대 구조적인 미디 어의 지배적 환경이 오히려 인간을 지배하고 또는 파괴 하는 부정적 요소들을 갖고 있어 어린이와 청소년은 물론 성인에게까지 그 영향력이 크게 미치고 있다. 이러한 현실적인 문제의 관점에서 미디어교육은 학교교육에서 다루어야 하는 중요한 교육적, 사회적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다.

2. 미디어 교육사 양성과정의 필요성

최근 우리나라는 2009년도 미디어법의 통과로 인하여 더욱 많은 방송들이 출현하게 됨에 따라 미디어의 영향 력이 더욱 커지게 되었고, 방송사들 간의 경쟁에 의하여 문제성이 있는 많은 방송들이 아무런 비평능력이 없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노출되어지고 있다.

현재까지 미디어교육은 학교교육 현장에서 체계적으 로 전개된 시스템이 아니었고, 개별적이고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경제적, 시간적 여건이 허락된 소수의 수혜자들에게만 기회가 주어지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위해 서 미디어교육은 사회적이고 교육적인 불평등을 해소하 고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커뮤니케이션권리의 보장을 위

해 제도화 되어야 한다. 이제는 미디어 환경의 변화에 따 른 새로운 교육으로서 미디어의 개념과 문화에 대한 철 학적 검토를 통해서 새로운 미디어문화교육이라는 개념 을 제시 하고 구체적인 교육 체계화를 구축해야 한다. 이 를 위해 우선 기존의 미디어교육 체제에 대한 분석과 전 체 교육과정 자체의 재구조화가 필요하다. 미디어 교육 이 학교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면 어떻게, 누가 미디어교육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현실적인 전문인 양 성 문제가 선행적으로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정보화 사 회이자 미디어시대인 현대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필수적 인 정보 수용력과 비판적 판단력 및 참여적 활동능력을 소유해야 하는 중요성 때문에 미디어교육에 대한 체계적 인 시스템 구축이 필요한 것이다.

표 1. 미디어교육 패러다임의 변화

구분	70, 80년대	90년대	90년대 이후
패러다임	대중문화의 틀	도구적인 미디어	멀티미디어적 환경
미디어의 수용	보호적이고 선별적인 미디어 수용	비판적인 미디어 수용	디지털문화 속에서 미디어의 생산
미디어교육의 목적	미디어에 대한 저항력을 길러 주는 교육 (제한된 보후주의)	미디어에 대한 선택과 자율규제능력 강화 교육 (적극적이고 능동적)	다양한 미디어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교육 (시·공간 초월적 소통)

[표 1]과 같이 미디어 문화 교육은 문화이론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며, 시대의 변화에 따라 미디어 교육의 의미와 패러다임도 변화되고 있다[6].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라 미디어 교육 방법과 교수법들이 변화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현재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 부분에서의 보완과 제도적 변화가 필요하다. 앞으로 개발되어야 할 전문인 양성 교육과정은 학교 교사나 미디어분야에 관련된 종사 자에게 필요한 기본 지식을 체계적으로 접하게 하는 전문가 양성코스이어야 하며, 더욱이 교육현장과 미디어 시장에서 종사하는 교사나 관계자들이 교육의 기회를 쉽게 접할 수 있게 시·공간적 제약을 해소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대안적 방법으로 미디어교육 전문가 양성의 질적 보장을 위해 현행 대학 교육과정과 교육체제를 유지하면

서 디지털 시대에 접근이 용이한 온라인 미디어 교육과정을 들 수 있다.

III. 미디어교육의 현황과 문제점

1. 미디어교육의 국내·외 현황

국내에서 미디어교육은 학교 교육체계 밖에서 대부분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는 미디어를 단순하게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벗어나 미디어의 과정에 직접적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들이 증가하면서 미디어를 배우고 익히는 일이 학교 밖에서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 내에서도 재량활동 시간을 통하여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아직까지 미디어교육에 대한 직접적이고 체계화된 국가 정책이 구체적으로 나타나고 있지는 못하지만, 점차 미디어교육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시민·사회단체, 국가기관, 산하기관, 학술단체 등에 의해 간헐적으로 미디어교육에 정책적 지원이 시작되고 있다. 여기서 행정 부서 외에 미디어교육에 관심을 갖고 있는 기관들을 보면 [표 2]에서와 같다. 그러나 이러한 기관들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연대를 하지 못하고, 서로 다른 정책을 펼치는 가운데 미디어교육은 효율적이고 통합적인 발전을 이루고 있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다.

표 2. 미디어교육 관련 기관의 종류

종류	시민단체	공공기관	교육단체	학 회
기관의 유형	문화연대 시청자치단체 여성단체(민우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언론재단 한국방송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청소년보호위원회	각종 교사모임 기윤실 '깨마동' 전교조 등	미디어교육학회 한국언론학회 한국영화학회

위 표에서 보는 것과 같이 2006년까지 진행되고 있는 미디어교육의 실태를 보면 미디어교육 프로그램을 가장 많이 개설한 기관은 “놀이미디어 교육센터”, “매체비평”, “민주언론시민연합” 등의 기관이 운영되는 미디어 관련 시민 단체이며, 가장 많은 교육인원이 참여하는 기관은 미디어 관련 공공기관인 “한국언론재단”으로서 약 7만 여명이 참여하고 있다. 그리고 언론사 및 복지시설 등의

순으로 미디어교육이 진행되고 있다[7]. 이와 같은 현황을 볼 때 한국의 미디어교육은 지금까지 학교교육 보다는 시민단체나 종교단체, 영상관련 단체가 주도하고 있는 특성을 지녀왔기 때문에 국가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제도화하기 위한 미디어교육의 실행이나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었다. 학교현장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미디어교육을 실시 하고자 하는 몇몇 교사들의 노력에 따라 자체적인 체계화의 시도가 있었으나 근본적인 제도화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현재 한국 미디어교육 교사 양성과정의 몇 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아래 [표 3]과 같으며, 이들의 대부분은 지속적이며 전문적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 아니라, 일회성으로 제시되고 있는 부분이 대다수이며 제도화 되지 못하여 전문인 양성교육과정의 대한 질적 수준을 판단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표 3. 대표적인 한국 미디어교육 교사 양성형태

양성 기관	교육 형태	교육 기간	교육 내용	교육 관리	
민간 단체	경실련 미디어워치팀	중등미디어교육을 위한 미디어교육강사양성시스템	2개월(20 강) 2개월(10회) 워크숍및시범강의(지속성)	중등미디어교육에 대한 교육적 방법론 및 프로그램	매월 2회 정규모임 및 사례발표 (현직교사)
고등 교육 기관	서강대학교	인문대학원	매 학기	미디어교육 전공	전공이수
교사 모임	전국 국어교사 모임 (매체 연구부)	국어과목에서의 미디어교육 실천	지속적이고 정규적인 모임	수업모임 매체발 모임 제작모임	국어교육과 매체교육의 연계성 확대
공공 기관 및 학회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및 한국미디어교육학회	미디어교육교사인증교육과정	온라인 12주 오프 30시간 (지속성)	미디어교육 개론, 제작, 편집, 실습 등 체험 사례	미디어관련 학과전공자 및 2년 이상 경력교사 대상교육
지역 단체	부산 시청자 미디어센터	미디어교육 입문교사양성 과정	2008년 6월 36시간 (일회성)	미디어교육의 의미와 내용 및 교수법	미디어교육 교사 지원자 (일반인)
	인천광역시 남구학산 문화원	미디어교육 교사양성 워크숍	2008년 12월 54시간 21강(일회성)	미디어교육 입문	미디어교육 관심자 (일반인)

선진국의 경우에는 미디어교육이 하나의 독립된 교과목

으로 가르쳐지기 보다는 오히려 다른 교과와의 통합적 교육을 실시하는 전공 간 융합모형을 제시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어린이·청소년 대상 미디어 교육의 경우 독립적으로 미디어 교육 교과 과정이 개설되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의 각 교과 과정과 연계하여 개별 과목들의 학습 과정 내에서 미디어 교육이 통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8]. 미디어교육 교사 양성도 다양한 연수과정 및 교과서나 가이드북 등의 출판물을 통해서 간접적인 교사 양성교육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구체적으로 영국, 미국, 일본 등의 미디어 교육에 대한 현황은 [표 4]와 같으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9].

표 4. 외국의 미디어교육 교사 양성과정 현황

국기	교육기관	교사교육형태	교육기간	교육과정(내용)	교육방법
영국 [7]	런던대학교 교육연구소 및 영화 연구소 공동 개설	석사과정 학점은행제	12주 (한 학기)	미디어교육입문	오프라인 및 온라인 병행 (현장교사참여)
	영어미디어센터	단기연수과정	2~6 일	신인교사를 위한 도입과정 및 미디어 연구교육과정	오프라인 강의 및 워크숍
미국 [8]	Temple 대학교	학부과정 및 석사과정 현장교사 연수	한 학기 및 단기연수	미디어교육입문	오프라인 및 정보제시용 웹 사이트개설
	Appalachian State 대학교	석사과정	한 학기	미디어교사자격 획득	오프라인 및 온라인동시과정
	비영리단체 LA미디어교육센터 (CML)	학교·교회의 공동체 지역 대상 교육	단기과정	미디어교과 전문능력 향상을 위한 자격과정	오프라인 강의 및 워크숍 (실제적용교육)
일본 [9]	동경대학교 교사지원온라인 시스템	현직교사들 간 전문성 교류 지원교육	2개월	미디어관련 6개 테마 교육운영	전문 웹사이트 개발 운영 온라인프로젝트
	시즈오카현 교육위원회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연구협력 학교 교사연수 교육	-	대학이나 지역 교육위원회 제공 연수교육 진행	오프라인 연수교육 프로젝트형 교육

과목만을 독립된 과목으로 가르치기 위한 교사 양성이 아니라 관련 교과목의 일부로서 가르치고 있다. 셋째, 대부분의 나라에서의 교사양성교육은 직전 교사교육 및 연수과정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으나 영국과 미국의 일부 대학에서는 석사과정으로 운영되고 있다. 때로는 대학교 외부기관이 공동으로 양성과정을 개설하여 교사들의 재교육을 실시하고 있기도 하다. 넷째, 현장 교사들은 실질적으로 시간과 공간적 제약 때문에 학습기회가 한정적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사이트개설을 통한 정보제공 및 온라인 교육과정을 동시에 개설하는 경우가 많다.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우리에게도 관련 교과 내에서 보다 충실히 미디어교육의 목표에 맞는 내용과 방법으로 미디어교육의 요소를 포함 시키고, 이를 위해 직전 교사교육 및 현장 교사들의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대학은 물론 관련기관들의 지원이 필요하다. 특히 무엇보다도 현직 교사들의 재교육을 위한 제한된 환경을 극복하기 위해 원격대학의 미디어교육 교사 온라인양성과정의 개발이 전문성 확보와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절실히 요구된다.

2. 기존 미디어교육 교사 양성 과정의 문제점

학교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교육에 대한 현직 학교 교사들의 인식을 보면 첫째, ICT의 활용을 미디어교육으로 보는 도구적 차원의 경향이 높다는 것과, 둘째로 미디어교육을 비평교육, 모니터 교육으로만 인식하여 미디어 읽기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미디어 언어에 대한 이해를 가르치기보다는 단편적이고 부정적인 측면만 다루어 질 수 있다. 셋째는 미디어교육을 미디어제작 교육으로만 국한시키고 있다는 것인데, 사회교육시설에서 미디어교육을 단순히 미디어 제작 실습으로 이해하여 교육과정을 개설되어왔고, 이것의 연장으로서 학교에서 주로 창의 재량활동 시간을 통해서 단순하게 이루어져 왔다. 이제 이러한 미디어교육의 소극적이고 단편적인, 그리고 일시적인 형태의 교육에서 탈피하여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미디어교육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미디어 교육에 대한 다양한 연구들이 교육계, 미디어 관련기관 및 학계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첫째, 미디어 교육이 중등교육에 부분적으로 전문교사에 의하여 단기간 도입되기는 하나 독립된 과목으로 운영되고 있지 않다. 둘째, 미디어교육 교사 양성 역시 미디어

있다.

미디어교육은 문화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이것은 각각의 문화를 담아내는 환경 속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변화 발전해 왔다. 즉, 미디어교육은 미디어를 이해시키면서 문화를 이야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으며, 문화는 개인들 간의 소통의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미디어문화 교육이 한국에서는 지금까지 시민단체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이제는 학교교육으로의 제도화를 위해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언론재단, 미디어교육학회, 교사단체 등의 다양한 기관에서의 미디어교육에 대한 체계화 논의가 계속되고 있으나 이러한 미디어교육의 몇 가지 문제점을 살펴본다면 첫째, 미디어교육의 체계적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도화 마련에 내실 있는 논의가 이루어 지지 못하고 있다. 둘째, 미디어교육과 관련된 논의나 실행이 직·간접적으로 학교 미디어교육과 관련을 맺고 있으나 여전히 미디어교육은 주로 학교 밖에서 논의되고 있다. 셋째, 여러 기관에서 이루어지는 미디어교육이 현장에서 개인 또는 개별단체나 특정기관 중심의 사업만으로 전개되고 있어 이것을 공유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토대로 활용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넷째, 미디어교육의 올바른 활성화를 위해 체계적인 지도자 양성 교육과정 보다는 몇몇 기관의 일회적인 행사 중심의 교육프로그램이 주류를 이루어 교양교육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미디어교육이 학교 교육 안으로 들어가야 하는가에 대한 회의적인 견해가 있다. 그것은 미디어교육을 공교육 내에 제도화하기 보다는 시민사회교육 영역에서 좀 더 활성화하자는 것인데, 이는 미디어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새로운 교수법이 필요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생활을 지배하고 있는 미디어를 이해하고 비판적 수용과 분석을 통해 서로 간에 소통하는 법을 배우고, 미디어를 적극 활용하여 자신을 표현하고자 하는 커뮤니케이션의 방법을 올바르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미디어교육을 공교육 내로 흡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디어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고등교육 내에서 전문적이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단순한 미디어교육만을 하는 미디어교육 교사가 아닌 통합교육과정에 필요한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미디어교육전문

교사의 교육과정이 필요한 것이다. 일반적으로 교사는 자신의 담당 과목을 가지고 있으며, 그 과목만을 학생들에게 지식전달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방식에서 벗어나 통합교육이라는 거시적인 차원에서 교원은 자신의 담당 교육과목의 지식을 단순히 전달하는 전달자가 아닌 미디어를 통한 통합적인 교육방식을 개발해야함으로 이러한 미디어교육 교사 양성교육과정의 필요성이 더 절실한 현실이다.

IV. 사이버대학에서 미디어교육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개발

1. 미디어교육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

미디어교육이 자기표현에 대한 자율과 창의를 위해서는 어떤 형태로 정규교육 안에 포함하며, 어떤 형태로 가르칠 것인가, 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 연구를 통해 바로 미디어교육의 제도적 체계화를 위해서 무엇보다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디지털 시대적 환경에 맞는 미디어교육 교사를 양성하기 위한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을 제시하고자 한다.

현직 교사들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을 통해 그 실현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사이버대학의 관련 전공을 살펴보면, 영상, 미디어관련 전공과 교육관련 전공이 있으며, 구체적인 현황을 [표 5]을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10].

표 5. 원격대학에서 미디어 전공 현황

학 교	전 공	교과 목 수	학생 수
미디어 관련 전공	한양사이버대학교	광고홍보영상학과	28개 379명
	사이버한국외국어대학교	언론홍보학부	34개 196명
	서울디지털대학교	디지털영상학부	35개 193명
	한국디지털대학교	미디어홍보영상학과(영상분야)	30개 146명
교육 관련 전공	한국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학부	45개 735명
	국제디지털대학교	평생교육학부(e-평생교육학)	29개 598명
	한양사이버대학교	교육공학과	35개 582명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육학부	35개 476명
	한국사이버대학교	평생교육학부	45개 467명

미디어교육은 여러 과목이나 전공분야, 그리고 미디어에 대한 이론과 기술적 분야 간의 통합적 교육 형태를 통해 더욱 강화시킬 수 있다. 이것은 미디어 교육의 체계성과 연계성의 부족함과 우리에게 맞는 주체적인 미디어교육 모형의 결여, 그리고 학교 교육기관과 연수기관과의 체계적인 미디어 교육사 양성 프로그램의 부족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결국 대학에서 영상·미디어 분야와 교육 분야의 균형적이고 조화로운 연계를 통한 미디어교육사 교육과정 개발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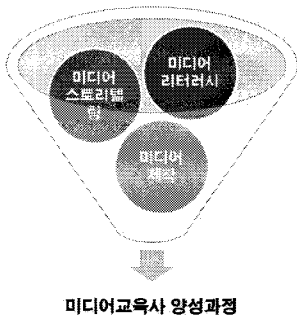


그림 1. 미디어 교육사 양성과정 요소

교육과정은 [그림 1]과 같이 3가지 요소가 복합적으로 결합이 되어야 하는데 첫째는 미디어 비평교육과 미디어 자체에 대한 의미를 인지하고, 그 본질적인 이해를 추구하는 미디어리터러시 교육이다[11]. 이것은 미디어에 대한 이해에 초점을 두고 미디어의 사회적 의미와 영향력, 미디어 텍스트에 따른 특성과 현실 구성 및 형태에 따른 접근과 의미 분석 등 미디어에 대한 객관성을 바탕으로 분석적 의미를 추구하는 것이다. 학교교육 현장에서도 이제는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교사들에 의해 미디어교육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둘째는 교과목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스토리텔링에 대한 연구 방법이다.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단순한 미디어의 이용 보다는 스토리텔링 방식을 통하여 풀어나감으로서 학습자의 이해도를 높이는 방법이다. 이는 기존의 교육공학에서 이루어지던 것으로서 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에서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다. 셋째는 제작방식으로서 교육에 사용되어지는 미디어에 대한 전반적이 이해와 실무적인 미디어

제작실습에 대한 교육이다. 현대사회에서는 많은 미디어 형식이 있으며, 교육 현장에서 사용되어지는 대부분의 미디어는 파워포인트, 웹, 영상과 같이 3가지 정도로 요약이 될 수 있다.

전공 간 융합모델의 제시는 디지털 시대에서 교육이 수직적인 교육이 아닌 인접학문과의 연계성과 공통점을 잘 연결한 새로운 교육패러다임의 형태로 등장하고 있다. 이러한 미디어교육사 온라인 교육과정의 구성을 전공간의 새로운 연계 형태로 제시하고자 [표 6]에서와 같이 원격대학 내의 관련 전공 간 연계를 통해 미디어교육사 양성과정의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할 수 있다.

표 6. 미디어교육사 온라인 교육과정

분류	교육학 관련 교과	미디어 관련 교과
미디어 리터러시	미디어교육의 이해	미디어와 문화
	미디어교육 방법론	영상의 이해
	미디어교육 교수법	영상communication
	미디어교육현장실습	Visual literacy
미디어 스토리텔링	교수설계	콘텐츠 디자인
	교수설계모형	타이포그래피
	원격교육 활용론	Visual Communication
	이러닝 설계론	
미디어제작	HCI이론	Computer Graphics
		영상촬영 및 편집 실습
		웹·플래시 디자인
		MS-Office 관련과목
선택 교과목	교육관련 과목개설	미디어 관련 과목 개설

미디어 교육(학)은 미디어와 관련된 모든 교육적 사고를 연구하며 미디어 활용 능력을 갖춘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하고 있기[12] 때문에 [표 6]과 같은 양성 교육과정 개설이 필요하다. 이 외에도 다른 교육과목들이 경우 필수 교육과목과 선택 교육과목으로 나누어 수강생의 교육 영역에 맞도록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질 수 있도록 다양한 선택 교육과목을 운영하도록 해야 한다. 이러한 교육과정의 운영은 현재 다양한 기관에서 단기적이거나 일회적인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비체계적인 교육 형태에서 탈피하여 학교 교사나 미디어 전문가 양성을 보다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필수 교과목 영역들을 살펴보면 미디어 리터러시 영역은 미디어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입문과정으로 미디어가 미치는 영향을 기초로 하여 미디어교육의 필요성과 유형 및 다양한 연구영역을 소개하고 또한 미디어의 사회, 문화적 이해를 기본적으로 습득하게 한다. 미디어 스토리텔링 영역은 미디어의 본질적인 이해를 토대로 미디어 교육방법론과 설계 등과 같이 적용 가능한 교수법 및 영상매체의 특성과 언어를 실질적으로 체득하여 미디어 스토리텔링 능력을 통한 연관관계와 상호작용의 능력을 배양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디어제작 영역에서는 미디어교육 현장에서 실질적인 적용 능력을 함양할 수 있도록 영상 촬영 및 편집, 온라인 교육과정 제작 등을 통해 창의적인 미디어교육을 이끌어 갈 수 있고, 현장 교육실습의 사례를 공유할 수 있다.

2. 미디어 교육사 양성의 활성화와 기대 효과

미디어교육사 양성은 교사들에게 미디어교육을 통해 미디어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와 활용능력을 키울 수 있으며, 비판적 판단력과 분별력 있는 태도로 미디어를 선택하는 문화의 새로운 생산자를 길러내는 전문가로서의 자질을 갖게 하는 것이 목표이다. 미디어 교육사는 이러한 양성과정을 통해 미디어교육과 정보기술을 위한 기본 교육에 올바른 방향 제시와 프로젝트 및 수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지식과 능력을 갖추어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수많은 현장 교사들을 위한 미디어교육 교사양성과정이 체계적으로 시스템화 되어 있지 못한 상황에서 미디어교육사 양성을 위한 원격대학 내의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은 다음과 같은 기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첫째, 미디어교육을 전공하지 않았거나 외부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대부분의 교사들에게 제한된 시간과 공간적인 문제에서 벗어나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갖게 한다. 둘째, 원활한 미디어교육 전문가 양성을 통하여 빠른 시일 내에 미디어교육이 학교교육과 접목 하여 체계적으로 정착하고 제도화 될 수 있게 될 것이다. 셋째, 그동안 몇몇 시민단체나 종교기관 등에서 교사, 사회단체 지도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미디어 교육 강좌가 실시되어 왔으나 저마다 교육내용과 효과 면에서 체계적인 전문교사 양성이 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교육 상황을 체계적인

전문가 양성 교육과정 개설과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해 보다 전문적인 미디어교육을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미디어교육 및 미디어 문화의 이해와 활용도가 부족한 교사들에게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미디어교육 교수법과 관련 정보를 다양한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 가능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여섯째, 미디어교육의 특성상 교사의 역할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의미에서 미디어교육의 경우 미디어, 철학, 언어, 윤리, 사회, 예술 등 포괄적인 부분을 다루어야 하며, 매체에 있어서도 신문, 방송, 광고, 영화, 인터넷, 게임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를 넘나들 수 있는 관심과 역량이 필요한데, 이러한 다양한 미디어교육에 대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교사양성 방안을 온라인 교육과정을 통해서 연계성과 체계성을 가지고 이루어 나가야 할 것이다.

미디어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은 인쇄매체와 영상매체, 컴퓨터 등의 매체에 대한 개개의 교육적 문제를 다루는 것뿐만 아니라, 어린이, 청소년, 성인 등 사회 구성원들이 사회 비평적인 분석 능력을 키우고, 정치, 경제 및 사회적으로 연결된 각 사회의 미디어 상황을 파악할 능력을 고양시키도록 개발되어야 한다[13]. 이러한 미디어교육의 실천을 위해서는 교수-학습과정에 미디어를 적극 활용함으로써 교육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학습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시킬 수 있는 온라인 교육과정 개발을 통하여 미디어교육사 양성이 더욱 활성화될 수 있다.

V. 결론

디지털영상문화시대인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이자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활성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회이다. 이와 같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만들어진 사회에서 우리의 의식구조와 정체성, 공동체성, 세계관 형성 및 삶의 방식에 커다란 변화를 이끌어 왔다. 중요한 것은 지식과 정보의 양적 처리의 문제가 아니라 지식과 정보의 의미 구성방식과 커뮤니케이션 수행 능력이 관건이다. 지금은 텍스트 중심의 교육과정에서 텍스트, 이미지, 사운드가 통합된 멀티미디어 형태의 교육이 이루어지는 가운데 시대의 변화에 필요한 새로운 교육으로서의

미디어교육이라는 개념 제시와 구체적 교육과정의 체계화 구축이 이루어져야 한다. 지금까지 미디어교육은 개별적이면서 비체계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소수의 수혜자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져 왔다. 그러나 디지털 영상문화시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모든 미디어 수용자들이 미디어교육을 통해 필수적인 정보수용 능력과 비판적 판단력 및 새로운 미디어 콘텐츠에 대한 창의적 개발 능력을 길러야 한다.

본 연구는 바로 올바른 미디어교육의 체계적인 제도화 방안을 구축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미디어교육 교사양성 교육과정 개발을 온라인 교육의 기틀 아래 제시하고자 한 것이다. 새롭게 제시된 교육과정의 내용은 미디어 리터러시 영역, 미디어 스토리텔링 영역, 미디어 제작영역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하여 단계별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제시된 교육과정과 교사의 전문분야에 맞는 선택 과목들을 교육과정에 개설함으로써 미디어교육 및 미디어 문화의 이해와 활용도가 부족한 교사들은 현장에서 적용 가능한 미디어교육 방법 및 교수법 등 관련 정보를 다양한 측면에서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본다.

추후 연구에서는 본 연구자가 제시한 교육과정 모델을 전문가 그룹 및 수강생들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세부적인 교육 카테고리의 분류와 교육과정 내용에 대한 연구로 확장 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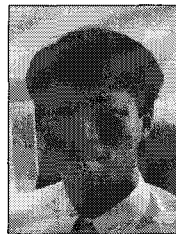
[1] 김기태, “미디어 교육 전문지도자 양성 시스템 연구”, 한국언론학회, No.03, pp.32-34, 2007.
 [2] 김규원, “지역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미디어 교육 활성화 방안”, 충북개발연구원, No.04, p.6, 2008.
 [3] Renee Hobbs, “The seven great detates in the media literacy movement,” Journal of Communication, Vol.48, No.6, p.6, 1998.
 [4] 최민재, 한국의 미디어교육 현황, 한국언론재단, 2006.
 [5] 김기태, 이제는 미디어 교육이다, 바른 언론 시민 문화 교실, 2007.

[6] 김양은, 안정임, “미디어 교육의 개념 및 학교 미디어 교육의 방향”, 한국언론학회, No.1, pp.3-4, 2004.
 [7] 최민재, 한국의 미디어교육현황, 한국언론재단, 2006.
 [8] 은혜정, 영국의 미디어 교육, 세계 미디어 교육 모델, 한국언론재단, 2000.
 [9] 조동원, 영상문화교육 교육과정 기초연구, 영화진흥위원회, 2002.
 [10] <http://www.academyinfo.go.kr/schoolSearchAction.do>
 [11] 정현선, 미디어 교육과 비판적 리터러시, 커뮤니케이션북스, 2007.
 [12] 문혜성, “미디어교육이 변화하고 있다”, 한국언론학회, No.1, p.29, 2003.
 [13] 주형일, 미디어 교육의 원리와 방법, 영남대학교 출판부, 2008.

저자 소개

이 성 균(Sung-Kyun Lee)

정회원



- 1998년 9월 : 독일 뒤셀도르프대학교(교육학석사)
- 2003년 12월 : 독일 뒤셀도르프대학교(교육학박사)
- 2000년 12월 ~ 현재 : 서울디지털대학교 교육학부 조교수

<관심분야> : 교육행정, 평생교육, 직업교육

윤 영 두(Youngdoo Yoon)

종신회원



- 1994년 2월 : 경희대학교 물리학과(이학사)
- 1999년 8월 : Academy of art university(MFA)
- 2002년 3월 ~ 현재 : 강원대학교 부교수

<관심분야> : 애니메이션, 미디어, 특수효과, 모션그래픽